

地臺石과 下臺가 一石이다. 下臺石에는 伏蓮을 돌리고 四隅에 귀꽃을 彫飾하였으며 上面에 一段의 높은 角形받침을 刻出한 위에 中臺를 놓았다. 中臺石 四面에는 음직한 眼象一區가 있는데 그 形態는 通式에서 變形된 것으로 그 內에 花瓣의 彫飾이 있다. 上臺石 下面에는 높고 얇은 괴임이 各一段씩 있고 仰蓮이 彫刻되었으며 上面은 平坦하다. 臺座 全部의 彫刻에 赤, 白의 「뽕키」로 彩色하여 本來의 手法를 充分히 볼 수 없음은 甚히 遺憾된 일이다. 年代는 坐像의 相好나 衣文 臺座의 各部 彫刻으로 보아 高麗代로서 前記石塔과 同代로 보아야 할 것이다. 實測值는(cm) 다음과 같다.

- 全高 九五 肩幅 四五 膝高 七三
- 頭高 三四 胸幅 三六 膝幅 二〇
- 下臺高一九 中臺高 三六 上臺高一二・五
- 前面長 九三 前面幅 五三 前面幅 八六・五이다
- 側面長 七二 側面幅 四四 臺座全高 八五

以上の 塔像外에 筆者가 調査時에 域內에서 石造破佛九軀를 收拾하여 草家堂宇東側에 陳列하였는데 그 中二軀는 彫刻도 뚜렷하여 麗代의 作品임을 곧 알 수 있으나 其外는 磨滅이 極甚하여 彫飾을 分別할 수 없다. 아마도 이 石像들은 同寺에 安置되었었던 羅漢像들이 아닌가 推測된다. 이 곳 調査는 一九六四年一月十七日에 있었는데 當時 孫基祥 姜敬淑 兩氏와 同行하였었다.

끝으로 이 塔像에 關하여는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五二九頁에 記錄되어 있음을 附言한다.

橫城出土 靑銅製小鐘과 무쇠솥

李 浩 官

江原道 橫城郡 橫城面 邑上里一五〇番地 番中에서(寺址로 推定) 一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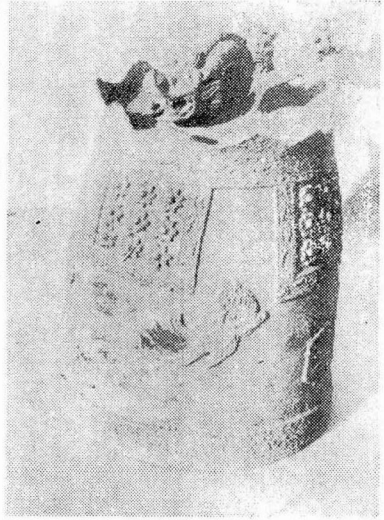
第六卷 第二號 通卷五十五號

六四年 十一月 二十 五日에 出土된 遺物을 紹介하고자 한다.

出土된 遺物은 靑銅製小鐘 一口와 무쇠솥 二個 솥뚜껑 一個 靑銅香垵 一口 (破損) 靑磁盞 一個 等 여러點인데 이 中에서도 特別히 靑銅製小鐘과 무쇠솥이 注目되었다. 一、靑銅製小鐘

通型의 小鐘으로 鐘體에는 靑鏽가 덮혀있고 鐘頂에는 龍紐가 있으며 龍紐는 音管에 몸을 붙이고 있으나 音管의 上部의 一部가 破損되어 있다. 音管에 붙어있는 龍의 彫刻과 비늘은 刻明하고 양옆으로 버틴 두발이 기운찬 힘을 보여주고 있으며 발에는 如意珠와 節瓶桶을 各 各 쥐고 있다. 鐘體自體는 全體적으로 完全한 것으로 各部의 紋樣은 鮮明하며 鐘肩上緣에는 三角形으로 된 立狀蓮華紋 十瓣이 둘러있고 上下帶에는 雷紋이 새겨져 있다. 乳廓은 四處인데 역시 雷紋으로 둘러 있고 乳廓內에는 蓮花紋을 彫刻한 또렷 또렷한 九乳頭가 있다.

그러나 各乳廓의 크기와 乳廓間의 間隔이 약간씩 相異하며 鐘腹의 撞座는 通式이 아니고 六角形이다. 鐘腹의 菩薩像과 飛天像은 陽刻으로 各各二處 交互로 配置되어 있으나 彫刻手法이 그리 아름답지 못하다. 鐘體에는 銘文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있어 제작년대를 알 수 없으나 全體적으로 雅淡한 製作手法과 各部樣式으로 보아 年代는 高麗下代에 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實測值는(cm) 總高 三十二(龍紐高七 包舍) 鐘口徑 二十三, 厚 一一 乳廓幅 一一・五 長 八・五 乳廓間의 間隔 五・三・五.



우리나라 古式 通型樣式으로된 솔이므로 오랜 세월 靑銅製小鐘과 함께 地下에 埋藏되어 있던 關係로 몹시 酸化되어 있어 솔의 表面에 어떤 特徵을 發見하기 어려운 程度이다. 솔이 가지는 各各의 形態가 相異하며 그中 一個는 下部側面에 三個의 굽이 붙어 있으며 上部보다 下部가 넓어져 있고 솔의 底面은 平面으로 되어 있다. 다른 一個는 보통의 通式을 가진 솔이며 솔下部는 在來式솔보다 몹시 길고 있으며 特徵은 發見하기 어렵고 다른 一個와 같이 발이 달려있지 않다.

솔전은 二個 모두 全體的으로 통글게 돌려 있으며 同時에 發見된 一個의 솔부정도 특색이 뚜렷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在來式 솔과 달리 손잡이가 乳頭같이突出되어 있는 것이 보이며 二個의 솔과 뚜껑은 全部가 別個의 것이다.

實測值(cm) 솔(其一) 全高 二〇 口徑 二五 底徑 二七 腹徑 三七 厚 〇·五
 솔부정 直徑 二六·五 全高 八·五 厚 〇·五
 솔(其二) 口徑 三五 全高 三五 厚 〇·五

資 料

全南 寶城邑 出土의 塔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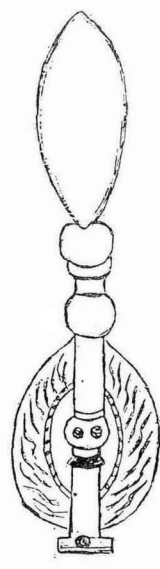
黃 壽 永

昨年 十二月 二十日頃 寶城邑 龍門里 山五八의 傳 寺址에서 崔洪元氏 (龍門里六五九 居住)에 의하여 靑銅製 佛敎遺品이 一括發見되었다는 바 今年 一月上旬 그들을 調査하였으므로 다음에 品目을 적어 두겠다.

(1) 靑銅如來坐像 一軀……등근 仰伏蓮花座위에 結跏趺座한 小像。로서 螺髮 通肩이며 右手를 들어 反掌, 左手는 무릎위에 얹고 있다. 衣紋은 垂下되어 裳懸座를 이루었는데 全高 十一·八 cm 身高 七·八 cm 로서 像名은 阿彌陀佛로 推定된다。(背面中央에 長方孔이 있다.)

(2) 靑銅菩薩立像 一軀…… 오랜 土中으로 全身에 靑녹이 덮였으며 臺座는 缺失, 唐草文寶冠과 連珠文頸飾을 갖고 裳帶와 全身에는 瓔珞이 장식되었고 天衣는 身部兩側을 따라 垂下되었다.

兩手는 缺失되었고 背面扁平하며 金箔의 一部에 남



(4) 實物大

(3) 小如來坐像(二軀)一個……唐草紋위에 跏趺座한 小像으로서 背光에 장식된 佛片으로 보인다. 高 九 cm (圖面)



(3) 實物大

(4) 靑銅相輪 一個……金屬工藝塔에 附屬되었던 水煙部 以上の 相輪頂部로 推定된다. 圓筒을 이룬 刹柱에는 아래로부터 連珠紋과 火焰文으로 장식된 四出의 寶珠形水煙(이 部分의 刹柱中央에는 작은 圓鼓形이 있어 四孔이 뚫려 있다)이 있고 그 위에 등근 龍車와 寶珠가 있으며 다시 尖部는 큰직한 鉞形을 이루고 있다. 이 鉞形은 四面인데 兩面은 넓고 他面은 좁아졌다. 全面에 鍍金이 잘 남아 있으며 下端에는 작은 圓輪을 이루어 二孔이 뚫려 있어 그 以下部分과 連結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全高 十五 cm 로서 相輪의 一資料가 될만 하다. (圖面)

以上の 塔像은 (1)을 除外하고는 모두 完品이 아니나 出土場所가 確實하게 앞으로의 調査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相輪部의 收拾은 그 塔身의 存在를 짐작케 함이 있다. 이들 諸品은 모두 高麗의 作으로 推定된다.